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토론자료집

2017. 9.15.  9:00~17:45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 |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 한국심리학회 ·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가나다 순)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 원 | 교육부

목 차

제 1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1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3
• 김태선(숭실대학교)
3.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5
• 길혜지(한국교육개발원)

제 2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I

1.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7
• 이우걸(한국교원대학교)
2.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9
• 김광혁(전주대학교)
3.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11
• 유현실(단국대학교)
4.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3
•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3 주제 부모자녀관계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5
• 정문성(경인교육대학교)
2.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7
• 정명희(중원대학교)
3.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20
• 은선경(KC대학교)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22
• 이자명(명지대학교)

제 4 주제 심리사회적응 I

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변화 연구 24
• 부향숙(한양대학교)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 26
• 박준성(중앙대학교)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27
• 신인수(전주대학교)
4.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29
•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

제 5 주제 심리사회적응 II

1. 사회적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31
• 홍성두(서울교육대학교)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33
• 오승근(명지전문대학)
3.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35
• 박상은(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37
•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제 6 주제 진로 및 지원정책

1.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39
•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41
• 안진아(인하대학교)
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43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대상·내용·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 45
• 이승미(한양대학교)

제 7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I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47
• 최유정(이화여자대학교)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요인의 구조관계 49
•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51
•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8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II

1.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53
• 강정희(동아대학교)
2.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55
• 김수지(연세우리가족상담센터)
3.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57
• 신태섭(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의 토론문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두서없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는 모형설정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형(모형1)보다는 1~4차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5차년도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형(모형2)을 설정하였는데 모형1이 아닌 모형 2를 설정한 이론적 근거가 궁금하다. 모형설정의 기준을 오로지 통계적 수치(모형적합도)에 두기보다는 적합도 검증 이전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강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관계부적응보다는 학습부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다소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이나 개인의 자아탄력성은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 즉 학업성취도보다는 인간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나 또래와의 인간관계보다는 학업성취적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이 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에서 그 초기값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아탄력성이 낮고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적응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상호작용을 거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는—어쩌면 더 악화되는—상태에서 자녀들의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 외의 교사나 또래 관계를 통해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기본가설이 자아탄력성은 부분적으로 교사와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으로 높아진 자아탄력

성이 관계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아진 자아탄력성의 원인으로 교사와 또래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성의 정도를 높이는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는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최근 우리나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¹⁾가 발표됨으로써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간 자녀의 학교적응(학습부적응)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부적응(학업성취)의 차이가 없는지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만약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http://news1.kr/articles/?3081252> (검색일:2017.8.29.)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의 토론편

김태선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겸임교수

발표논문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는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 및 함께 고민해볼 사항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연구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을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자녀로도 나누었을 때,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015년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들 중, 중도입국학생이 한국출생보다 1.7배나 높았으며, 학업의 어려움도 중도입국 학생의 입국이후 거주기간이 중요했습니다(이혜숙, 2016). 따라서 연구대상의 분포가 어떤지, 집단별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가계월평균 수입의 분포가 제시된다면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경제수준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6.5%이었는데, 이러한 주관적 평가와 제시된 부모의 학력이 자료분석에 함께 고려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모의 국적, 부모 및 자녀의 한국어 능력 (원진숙, 2009; 조영달 외, 2011; 천호성, 박계숙, 2012)이 가정배경요인으로 포함되었다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하나에 초점을 두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논문의 연구결과,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교사관계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성취동기가 중요했습니다. 연구자가 제안하셨듯이 자기주도적 학습훈련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장인실, 2016)가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 향상 및 학업성취에 기여할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구인 중에 하나로 비판적의식 (critical consciousness; Freire, 1993)을 소개합니다. 비판적 의식은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높은 학업동기와 성취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El-Amin, et al., 2017; Watts, Griffith et al. 1999).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또는 학업의 어려움이 무엇때문이라 생각하는지,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청소년들의 학업몰입과 성취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와 다문화청소년간의 관계향상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점으로 교사가 학생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가입니다. 선행연구 (조은혜, 2015)에서 다문화청소년을 향한 조력이 상위의 교사가 열등한 학생에게 베푸는 ‘시혜적 돌봄’은 학생의 무력감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시간부족, 학부모의 관심부족과 행정지원의 부족이 장애요인이라 보고한 만큼 (장인실, 전경자, 2013),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 참고문헌

- 원진숙(2009).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157-186.
- 이혜숙(2016).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조은혜(2015).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 구성과 전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장인실(2016). 1: 1 가정 방문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및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평화**, 10(3), 127-148.
- 장인실·전경자(2013).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인식과 실행에 관한 사례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6(1), 73-103.
- 조영달·김재근·박윤경·박선운(201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 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77, 33-65.
- 천호성·박계숙(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5-442.
- El-Amin, A., Seider, S., Graves, D., Tamerat, J., Clark, S., Soutter, M., Johannsen, J. & Malhotra, S. (2017). Critical consciousness: A key to student achievement. *Phi Delta Kappan*, 98(5), 18-23.
- Freire, P. (1993).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 Watts, R. J., Griffith, D. M., & Abdul-Adil, J. (1999). Sociopolitical development as an antidote for oppression—theory and ac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255-271.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의 토론문

길혜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첫 조사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2016년에는 99,186명으로서 10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생 중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이 약 7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8.30.일자 보도자료). 이처럼 다문화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또래친구 및 교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이, 다문화학생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여 면밀히 들여보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다문화학생들 또한 우리사회에서 공평한 교육기회, 공정한 교육과정 정의로운 교육결과를 누리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의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문화학생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자께서 논문을 발전시켜 나가시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소소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께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간 인과론적 순환 관계가 있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모형은 변수 간 상호 지연효과를 교차하여 종단적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Kenneth et al., 1996), 연구자께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의 답을 얻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연구모형을 탐색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으나, 세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모형 설계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타당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연구모형에서 '부모효능감'은 학생의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적응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변수입니다. 연구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부모효능감이라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교차효과 또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 후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께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에 해당하며, 세 변수 간 '순환관계를 인과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양적 분석에 있어서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에 익숙한 독자라면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본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으나, 익숙치 않은 독자를 위해 학교급, 성별 등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친절한 연구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 의하면, 2011년(1차)에는 1,625가구, 청소년 1,635명, 2013년(3차)에는 1,433가구, 청소년 1,446명, 2015년(5차)에는 1,338가구, 청소년 1,350명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1,639명이 크리닝 후 최종 분석대상을 의미하는 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분석대상 뿐만 아니라, 분석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한 필수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마다 서로 다른 외연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 4>의 기술통계표를 보면, 부모효능감이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모효능감 9개 문항을 모형에 투입 시 parceling한 것인지, 만약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parceling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2016.8.30.일자 보도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 자료집.
- Kenneth, S., Wood, M. D., Wood, P. K., & Raskin, G.(1996).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alcohol use: A latent variable cross-lagged pane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4), 561-574.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의 토론문

이우걸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있어 청소년의 성취목표,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등의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동기, 사회적지지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외국인 어머니의 생활적응 등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를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 연구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학업성취와 관련 있는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봤다는 의의를 가진다(Graesser, 2009). 다문화청소년이 보이는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양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봄에 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흥미로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면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먼저, 다문화청소년들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있어 중요한 청소년의 동기, 사회적 영향을 일반 청소년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문화청소년만이 보이는 독특한 양상이 있다면 이는 다문화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동기, 사회적지지에 비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외국인 어머니의 생활적응 등이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같은 변인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이전 시기에 이미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니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이후 변화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혹은, 설문 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Common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예, Guay et al., 2003)도 존재한다. 즉, 학생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 측정치들 간의 관련성이 학생의 설문 결과와 객관적인 수치(예, 월평균가구소득)와의 관련성 혹은 부

모의 설문 결과와의 관련성보다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의 변화율이 이후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았다. 토론자가 원고를 읽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일 수 있는데, 상관분석 이후의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의 변화율이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본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그렇다면 연구자들도 언급하고 있지만 초기값이 높은 경우 변화율이 낮을 수 있는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의 독립변인 변화율이 이후 종속변인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Graesser, A. C. (2009). Inaugural Editorial fo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 259–261.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토론편

김광혁
전주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다문화청소년을 주제로 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적지 않은 연구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 경험,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그리고 사회적지지 등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이 분야 연구와 현장에 큰 의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점에서 고민 또는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따돌림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따돌림 경험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부적응이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고정관념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앞서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 비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따돌림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의미 있으나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원인과 과정, 결과 등의 메커니즘은 비다문화청소년과는 다소 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의 따돌림에는 차별이나 낙인 등이 기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지지자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분은 지지자의 분석에 가려져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이후에 지지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면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모형이 지지자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를 위해 지지자가 있는 모형과 없는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단순 분리모형의 가시적인 차이가 실제적으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다집단 분석을 통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분명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연구결과 및 제언, 그리고 한계 부분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후학들이 함께 하는 자리임을 고려할 때, 보다 완성도 있는 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의 토론문

유현실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부교수

위 논문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개인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성별, 가족변인으로서 가족지지와 부모의 SES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논문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인 및 가족변인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논문의 질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엄밀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는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논문 본문 중에 ‘전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연구자는 중1시기의 학교생활적응 및 성적 예측을 위해 초6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유추컨대 초6~중1을 전환기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는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명확하고 풍부하게 다루기보다는 상당히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다(예: 4쪽 ‘다문화 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한 학습활동이나 학업 성취와 학교규범이나 규칙준수 혹은 학교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쪽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비다문화가정보다 다문화가정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에는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논문 본문 중 조사도구 내용 중에서 연구변인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특히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각 패널 데이터 변수들이 연구변인을 설정하는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예: 9쪽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 변인으로 2013년 데이터와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7쪽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학교성적 변인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목 자기보고점수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이의 평균값인지 합계점수인지 알 수 없다.)

셋째, 정확한 자료분석 방법이 적용되어 있는지 모호하다. 특히, 9쪽의 연구결과에서 각 변인별로 초등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t검증하였는데, 이는 2013년 시기 패널 데이터 2014년 시기 패널 데이터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반복t검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문 내용으로는 반복t검증으로 처리하였는지 독립t검증으로 처리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선행 이론 검토와 논문 서술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변인의 영향을 함께 검토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1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초등학교 시기의 자존감, 학교성적의 영향이 유의하다는 점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중학교생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에 충분한 학습지도와 자존감 증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토론문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청소년은 주관적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염유식 외, 2016)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대상을 다문화청소년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학술논문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 독자로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연구모형의 설정과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부분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부모의 지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되어 있으나, 이들 간의 인과를 설명함에 있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매개요인으로써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삶의 만족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모 지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가 왜 각각 외생변수와 매개변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지,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분석모형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에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타당한 설명이 부재하다. 분석에 앞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나 그 외 요인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가 있는지 혹은 성별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지 등 성별 특성에 대한 부연이 필요하다. 만약 성별 분석이 타당하다면,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집단별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의 전개가 적합할 것이다. 특히나 이 연구에서는 집단 간 유의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수의 크기만으로 남녀학생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매개변인이 2개 이상인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ion model)을 취하고 있다.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판별함에 있어 sobel test도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나, 본 연구자가 사용한 AMOS의 경우 부스트래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 phantom 변수를 활용하면 각 매개변인별 간접효과의 분해와 유의도 판별이 가능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석결과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직간접-총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표7>에도 유의도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그림2&3)에서 학교생활적응→삶의만족도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표7>에서 유의도를 표기하지 않은 탓에 마치 유의한 듯 읽히고 있다(본문에서도 '학교생활적응이 삶

의 만족도에 직접효과만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선행연구와 달리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인 자체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생활적응이 하나의 척도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습, 교사, 교우별로 분리 개발된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다른 요인과 달리 이 요인에 대해서는 전체문항의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이들 문항 자체가 학교생활적응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요인분석부터 엄밀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해당 요인의 구인을 정비하거나, 학습적응, 교사적응, 교우적응별로 요인을 분리하여 측정하거나, 각각을 대입하여 세 개의 모형을 분석하는 것 등을 대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개별 요인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 1) 자아탄력성의 경우에는 세부요인이 2개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구조모형 그림(그림1~3)에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측정변수가 3개로 그려져 있다.
 - 2) 학교생활적응의 경우에는, 교우관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는데, 문항들의 선별을 통해 신뢰도 값을 높일 방안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실제 주성분 분석결과 요인이 2가지로 추출됨).
 - 3) 각 요인별 신뢰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 요인에 대한 구인타당도(가령, 분산추출지수나 결정계수 등)를 검증하였다면 내용이 보다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서론에 인용한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다문화청소년 5명중 1명이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학업중단률은 1.15%으로 전체 학생의 중학교 학업중단률(0.63%)보다 높기는 하나(교육부, 2016, 2017), 본고에서 인용한 것처럼 5명중의 1명꼴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해당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중도탈락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 중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에 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5~17세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비율 또한 5명 중 1명(약20%)이 아니라, 16.4%이다. 학계나 정책 분야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부적응 문제가 다문화청소년 전체의 이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언론사의 과장된 표현이나 인용이 자칫 그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염유식 외(2016).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 연세대학교발전재단연구소.
- 교육부(2016).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전년대비 4,836명 감소**. 교육부 보도자료(2016.9.39)
- 교육부(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7.1.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토론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1.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논의

■ 연구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1~2015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논문주제를 위해 가공하여 양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충분하고 광범한 표집수와 논문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자료추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척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연구자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탐색을 하기에는 기왕의 자료에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발견이나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쟁점화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자가 종속변수의 하위 영역을 분석하지 않고 종합하여 단일평균으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 기존자료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심도깊은 논의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술한 자료의 한계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분석결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논리적 비약이나 분석결과 해석에 있어서 축소, 과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비교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도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특별한 발견의 의미를 부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 종단 및 횡단 연구로서 얻을 수 있는 발견 사실의 제시는 적절하다

본 연구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종단 및 횡단 비교를 함께 해서 새로운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상식적 사실의 실증적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삼국의 문화적 차이를 가져왔는데, 한국에 와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어머니일 때 가능한 논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지원을 위한 유용한 연구결과인지의 논의

■ 부모효능감이 출신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지원을 위한 부모효능감 자료는 출신국가별 차이가 있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출신국가를 바꾸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본 표집특성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연령, 한국 거주 기간, 교육 정도, 월 평균 소득 등의 자료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출신 어머니의 낮은 부모효능감을 일본의 문화로 해석해 버린다면 이 연구의 의미는 더욱 애매해진다.

■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결과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

연구자는 충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결과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도 심도있는 연구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유의미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한 논의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쉽고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 설문조사를 추가로 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3개 출신 국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면접조사 등을 보완하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

■ 어머니의 배경변인별 분석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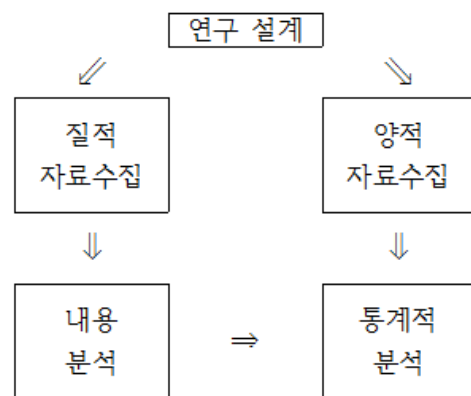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3국의 문화적 차이를 논거로 가져왔는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 한국 거주기간, 교육정도, 월평균소득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변인이 분석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해야 3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의 차이가 정교해 질 수 있다.

■ 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비교할 필요

비교집단으로 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비슷하다면 출신 국가 배경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추가적 설문조사 또는 면접의 필요성

기존의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한계는 연구자가 주제를 선정하기 보다는 가용한 자료에 의존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가적 자료를 얻기 위해 통합연구가 적절해 보인다. 즉 결과 해석에 필요한 면접조사 등이 좋은 사례이다.



[그림 3] 통합설계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의 토론문

정명희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계화의 흐름으로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연스레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게 되었다. 전통적 유교관념이 강한 한국사회도 어느덧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주의 사회화가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탈북민 등의 증가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 다민족화 되고 있음이 익숙해지는 시대적 현상 속에 우리가 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의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만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가적 정책의 대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은 빠르게 증가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이나 국가적 차원의 이해교육이 부족하다 보니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의 발생은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의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다문화사회 반대 운동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농촌이나 도서지역에서는 벌써 지역사회 일꾼으로 없어서는 안 될 이웃과 자녀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차세대 주역으로서의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단순한 서비스대상으로만 한정하여 단편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다문화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시선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를 접하게 되어 다문화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반갑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구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원 사업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사회를 이끌 차세대 주역이 될 수 있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문제점과 정책제시 및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가족 문제, 자녀문제 등에 대한 연구 및 정부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한 바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가장 큰 욕구가 자녀들의 학습문제였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들

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자녀 교육과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 결혼이주여성이다 보니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케어 및 학습케어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모-자녀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또한 학습장애를 조기부터 안고 가는 상황이 많아 안타까웠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겠다. 본연구와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입장이지만 오늘은 토론자로서 본 연구의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서 첫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기존연구결과를 뒤엎는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리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상자들의 반응정도만으로 기존연구(Berry, 1990, 김명자, 1991, 김정선, 신경림, 2004; 김혜란, 2006; 박수민, 2009, 원길, 2001; 장영자, 2003).

에 반하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를 뒤엎는 연구결과는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기존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결과에 대한 논리적 검증이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에서 부모효능감의 긍정적인 역할은 다문화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능력을 향상시켜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첫 번째 결과제시는 본 연구에서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영향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이는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에서 첫 번째 결과제시의 내용과 서로 상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리와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제시이다. 다시 한번 연구자의 신중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독창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케어형태는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중의 한가지다. 교육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및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자녀학습케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파악했기에 지원을 하는 것 인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좋은 논거를 다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의 결과를 뒤집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도 합리적인 논거를 펼치지 못함이 아쉽다.

기타토론

- 초록의 내용을 정리를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정리 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 수용하기 불편한 내용이다. 기존연구가 없다는 것은 찾아보지 못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에 관한 연구와 다문화가정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등등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어려움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은 수용하기 힘든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연구로 거듭 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의 토론문

은선경

KC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기존의 초등학생 중심의 학교적응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의 개념은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을 발달시켜오거나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사회적 위축, 가족, 학교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몇 가지 연구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론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임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고, 다문화청소년들에게도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차별성과 독특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다문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좀더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가 다문화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또 다른 편견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지는 않는지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고, 부모의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맞벌이와 그로 인한 방임의 논리적 전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부분과 같이 좀 더 세부적인 본 연구의 필요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기술이 더 요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연구결과의 기술에 있어서 각 변인의 평균점수를 제시함에 있어서 단순 합점수의 평균으로 하기보다는 문항수를 나눈 점수를 평균(방임 1.76, 사회적 위축 2.34, 우울 1.70, 학교적응 3.04), 표준편차 등으로 제시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임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는 부적이어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 표를 확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에서 제시된 지원은 다소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 위축과 우울의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방임을 청소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과 위축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상담과 상담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임은 부모에 의한 것이지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방임에 노출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박현정 외, 2014). 동시에 방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부모와 관련한 제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제언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인프라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도 요구됩니다.

◎ 참고문헌

- 박현정, 홍나미, 정익중 (2014).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19-346.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의 토론문

이자명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알아보았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의 지지와 같은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이 이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임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요인들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이들의 인과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자가 제시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 변인 간 관계 속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 지각된 가족지지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난 3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삶의 만족도나 가족지지,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면 이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삶의 만족과 가족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 자녀가 느끼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다문화청소년만의 특징인지에 대한 확인이 추가된다면 다문화청소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녀의 삶의 만족도나 가족지지 지각이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연구에 대해 본 토론자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들 사이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 및 인과관계의 방향을 추론하였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인식과 가정환경 변인들 간 관계를 청소년 발달 과정에 맞춰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인 만큼, 이 시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이들을 둘러싼 가족 환경 사이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적응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초5에서 중2까지 초기 청소년기에 대해 분석을 한정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충분히

히 이해하는 데는 다소 제한적이다. 추후 다양한 발달 단계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다문화청소년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기존 연구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조력하는 데에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중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응을 돕는 것은 부모와 자녀 양측의 삶의 적응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전에 해결이 된다면 이후 자녀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이나 부모지지와 같은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갖는 의미가 큼에도 본 연구에서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연구자도 이미 설명하였듯이 자녀가 지각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후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복지, 교육 차원의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자녀의 삶의 지각을 논의하였다. 추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변화 연구」의 토론문

부향숙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센터장

한국사회가 다문화란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 벌써 10년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있었던 가장 뜨거웠던 관심은 어떻게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교우관계를 포함한 학교교육에서의 적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려는 실천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이를 결핍으로 보았던 초기의 교육적 논의들은 점차 문화적 자원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나 흐름은 다문화주의를 교육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낸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적 환경을 결핍이 아닌 자산으로 돌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아탄력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 역시 기술하고 있지만,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외적 및 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입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적인 적응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주체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질적인 환경을 결핍에서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라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세 가지의 시간 독립적 변수(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학력)와 세 가지의 시간 의존적 독립변수(한국어능력, 이중문화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상정하여, 궁극적으로 이 변수들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자가 기술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아동의 이중문화수용 정도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또래관계등과 상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비행청소년의 회복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탄력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연구자들이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수로 채택한 것은 이 변수의 바람직한 개선이 학교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채택한 잠재적 성장모형은 다음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정시점에서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라는 네 시점으로부터 추출한 자아탄력성의 변화율에 대한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모형으로써, 교육적 효과의 종단적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특이점으로는 조건모형 검증을 위해 한 가지 모형만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모형 적합도를 통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2차함수모형이라는 세 모형 중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고 검증하여 변화율을 추출하기에 적합한 선택을 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결과, 인과적 모형에서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 문화수용능력의 최초치만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즉 이 세 독립변인들의 변화율은 종속변수인 자아탄력성의 변화율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결정적으로 만족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해도, 자아탄력성을 예측하려 한 점이나 자아탄력성 변화율로 인과적 관계를 종단으로 밝히고자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 봅니다. 향후에는 자아탄력성 변화율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혹은 변화율을 더 많이 찾아 실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할 요인들을 추출해 내는 연구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란 주제를 종속변수가 아닌 매개변수 혹은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연구나, 자아탄력성을 두고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간의 비교 연구도 시도할 만하다고 봅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의 토론문

박준성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 5개년도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그 결과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초4, 초5, 초6까지 증가하다가 중1, 중2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우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량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변화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는 가족 지지가 있었다. 가족지지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감소율과, 우울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보호요인이었다. 셋째,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한국문화 수용 수준이 유의했고, 환경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의 영향력 보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2000년대 이후 특히 관심을 더 갖고 있는 분야로 이주여성에 대한 적응, 탈북민에 대한 적응, 다문화 자녀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이나 학회 및 개인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국내 인구 중 국내 아동의 비율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출산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전반에서 보면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특히 단일민족이라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인해서 국내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원치 않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사용, 문화적인 정체성 확립, 학교생활적응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 연구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적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구하고 있고 개인간/개인내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음이 이 연구의 독창성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 다문화 연구를 조사해보면 상당한 수의 연구논문 보고서 및 서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가 증가했지만 종단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종단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를 두고 싶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을 개인간/개인내의 측면을 동시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의 토론문

신인수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정책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한 만족도변화를 연구한 원고에 대한 토론자의 의문 및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론 원고의 제목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입니다. 먼저, 제목에서 만족도 변화라고 했을 때 어떤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중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서론에서 여기서 말하는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삶의 만족도라고 제시해 주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둘째, 삶의 만족도가 토론자에게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은 삶의 만족도는 어떤 문항으로 측정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개념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어떤 문항으로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선행연구나 논리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세 문항(사는데 즐거움, 걱정거리 없음, 행복하다고 생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문항이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선행연구나 이론에 의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선형, 비선형(QUAD), 비선형(PIECE-WISE), CUBIC 등 다양한 형태의 성장 궤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선형 이차항(QUAD)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모형 비교 결과를 통해서 선정하셨는지요? 본문에서는 “시간에 따른 만족도 패턴을 보기 위하여 선형(Lin) 효과 및 비선형(Quad)효과를 살펴본 결과, 만족도는 비선형특성이 선형특성(일관적으로 증가 추세)보다 더 감소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기술하고 계십니다.

넷째, 삶의 만족도를 성장모형으로 연구한 이유가 있나요? 만족도 기술통계를 보면, 1년차 3.252, 2년차 3.257, 3년차 3.314, 4년차 3.238, 5년차 3.151입니다. 연도가 어떤 패턴이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술통계량과 다르게 비선형모형으로 보신 이유나 논리는 무엇인지요?

다섯째, 선형성보다는 비선형성이 더 강하다고 하시고, 남녀차이,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에게는 이런 부분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점에 따른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성장모형보다는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횡단면 연구를 후속연구로 하셔서 교육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관련 패널 학술대회가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기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의 토론문

김은정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탄력성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험요인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들이 야기하는 완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선행연구 고찰 부분에서 탄력성 이론이 매우 자세히 기술된 데 반해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이 탄력성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연구의 목적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탄력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구체적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탄력성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는 부분이 보다 더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가설을 분명히 밝힌 후에 연구방법으로 넘어가 가설과 모형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2) 독립변수인 탄력성, 종속변수인 결핍, 그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 설명’이 부족하다(연구 방법의 가설 모형에서도 매개변수와 종속 변수는 명명되어지지 않은 채, 매개변수, 종속 변수로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로서는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매개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바로 각 변수들을 어떤 문항을 이용해서 구성하였는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왜 어떤 변수가 매개, 조절, 종속 변수로 구분되어 연구에 이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

3) 독립변수인 탄력성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저자가 선행연구 고찰에서 제시한대로 ‘탄력성이 위험과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라면 이 개념이 매개변수(부모와의 관계, 학교 생활, 친구지지 등) 또는 조절변수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평자가 보기에는 매개변수와 조절 변수도 탄력성과 같은 맥락으로 다루어져야지, 따로 매개 변수, 조절 변수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각 변수를 이루는 문항들을 보았을 때,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조절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극단적으로는 이 모든 변수가 전부 탄력성이라는 개념 하에 독립변수화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검토했다면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고려하여 변수 설정을 해야 분석결과가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종속변수인 ‘결핍’의 개념도 적절치 못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저자가 반론을 하고자 한다면, 왜 종속변수들을 ‘결핍’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등을 왜 ‘결핍’이라는 부정적 단어로 개념화했는지가 의문으로 남게 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가 한국어가 아닐 경우를 ‘결핍’이라고 개념화한다는 의미인가?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유는 서론에서 저자가 논의한 대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부정적으로 심화되어지기 전에 다문화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사회적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토론문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먼저 소중한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우울, 사회적 위축,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성별에 따라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토론의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의 필요성 말미에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영향정도가 학교폭력피해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는 연구자마다 남녀 성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상식적으로도 성별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성별간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 배경과 참고 문헌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굳이 본 연구에서 성별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반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2.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내 ‘2. 사회적지지, 우울, 사회적위축과 학교폭력’의 내용 중 전반부의 대부분은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별로 비롯된 다양한 병리적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이 사회적지지, 우울, 사회적 위축과 학교폭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3. 연구방법: 연구자분들께서는 그림 1에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주제의 진술문에서는 사회적지지-우울-사회적 위축-학교폭력피해를 같은 수준(level)의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연구모형에서는 사회적지지의 하위 변수로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울, 사회적 위축, 학교폭력피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주제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 패널자료가 시점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일시점 측정 자료에 대한 분석인지에 따라 이 연구의 방법과 주제선정 상에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본 연구와

인과관계가 반대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지지(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와 같은 연구도 성립할 수 가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진술하신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무기력감,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이 성인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나타났다(김재엽·장용언·민지아, 2011)’의 경우도 학교폭력을 경험해서 우울 등에 빠지는 것이지, 우울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통해 인과관계의 명확성을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잠재평균(latent means) 비교를 제안드립니다.

4. 연구결과: 남녀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표2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값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셨으면, 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의 내용과 그림의 내용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 8에 제시되어있는 TLI(NNFI) 변화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연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토론에 관하여 연구자의 의도에 어긋나게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 참고문헌

- 김재엽·장용언·민지아(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의 토론문

오승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부교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들의 적응여부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를 선정했고,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심층 분석한 우수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어떤 한 시점에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횡단적 연구가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변화에 대한 부모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기에 이 연구가 주는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토론자가 살펴본 주요 검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 자아정체성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하며, 선행 연구결과도 면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자아존중감을 언급하면서 자아개념(2쪽, 4쪽), 자아정체감(1쪽)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자아개념과 상호관계성은 높지만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서 자아개념 형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며, 선행연구 논문을 인용할 때도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여 관련 문헌을 인용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문제행동이 줄어든다(3쪽)라고 말할 수 있으나 어떠한 문제행동인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자살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김대명, 2014에서 재인용).

둘째, 연구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상승하다가 중 1-2학년에 하락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이 왜 그러한지, 하위집단별로 인지적 발달단계의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이 평균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유효한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남, 녀 성별로 발달 측면에 차이가 있고, 같은 성별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표 2〉 참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그 중에서 청소년 4학년도 자아존중감 변수가 다른 년도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관관계 값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인지 발달 측면에서 자아존중감 변화가 발생했다기보다 학교급 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하는 추론도 가능하다. 추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에 따른 영향력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별이나 학교급 변인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성별로 구분해서 자아존중감 변화추이의 영향력 정도를 구분하는 것도 적절한 분석이라 사료된다.

셋째, 연구자는 자아존중감 형성이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로젠버그(Rosenberg)의 주장(4쪽),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김현철 외, 2015)를 이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그런데 연구자는 연구모형 설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부모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모형 설정 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이론적 검토와 모형 설정이 상이한 점은 이론적 검토, 연구모형 제고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자아존중감 변인과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인의 상호작용을 연구모형으로 삼아서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대명(2014). 생활사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113-13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의 토론문

박상은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전문연구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행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로 16개의 시도의 1,34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다문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다 더 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위계적 속성을 가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적절한 통계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층분석을 포함한 통계분석에서 30개 이상의 집단 수, 집단 내 개인도 3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Kreft & De Leeuw, 1998)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수준의 연구를 제외하고 30개 이상의 집단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때로 매우 적은 수의 집단이 분석되기도 하고 집단 내 개인도 30명 이하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박찬호, 2013)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층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수준에서 표집한 패널데이터의 경우 개인-지역수준의 다층분석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지역수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전체 분산 중에서 지역수준 분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지역의 2수준 다층분석을 추천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서의 지역요인이나 지역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자가 비행 경험을 가진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적어 1회 이상 비행을 경험한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로 종속변수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비행의 경중을 고려할 수 없도록 종속변수가 설계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비행경험 여부를 묻는 12문항을 평균처리하여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란다.

셋째, ‘다문화스트레스문항(21번, 리커트 4점척도, 10문항)’중 3문항을 선정하여 한 문항씩 자연로그로 변수를 처리하거나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문항(57번 2점척도 6문항)’중 2문항을 선정하여 각각의 문항을 더미변수로 독립변수에 활용하였는데, ‘다문화스트레스’, ‘친구와선후배’문항은 평균처리

하여 하나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란다.

넷째, 연구자도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과의 높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다문화스트레스 정도만 비행경험의 예측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활태도(54번)’, ‘학생의 기분(43번)’, ‘다른 사람과의 관계(44번)’ 문항 등을 변수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비행경험을 예측할 변수가 제약된 상황에서도 훌륭한 연구를 한 연구자에게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Kreft, I., & De Leeuw, J.(1998). *Introducing multilevel modeling*. London: Sage.
- 박찬호(2013). 다층구조를 이루는 이분문항 자료의 급내상관계수 추정 방안 비교. *교육평가연구*, 26(2), 459-47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의 토론문

박춘성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다문화 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한 횡단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과 학령기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변인으로 선정한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 거주지 인식 등의 변인은 성취동기와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련성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친구와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아진다. 또한 부모감독의 영향력이 여자청소년에게만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관심과지지, 격려가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목표의식을 갖고 도전하게 하도록 하는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남자청소년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취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이외에도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거주지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다른 연구와 공통점과 차이점 있는데, 연구결과는 큰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에 큰 틀은 차이가 없지만, 거주지에 대한 안정감 등의 변인은 그동안 국내 연구가 많지 않았던 분야인 만큼 이 발견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다음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이며, 이 자료는 종단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횡단 연구를 실시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양육태도, 성취동기, 친구관계, 교사관계, 거주지인식은 연속 변인으로 이를 활용한 종단연구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2015년 자료의 횡단분석 결과를 제시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취동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변인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문화 패널자료가 성취동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측정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이유이지만, 기존의 문항을 가공하여 흥미, 자기결정, 자아존중 등 성취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출하여 이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HLM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을

권고해 드린다. 다층자료분석 방법(Hierarchical Linear Model)은 자료의 위계적 수준까지 분석에 고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을 방지 할 수 있다(강상진, 1995). 다층자료 모형은 집단화 오류(aggregation bias) 및 오차변량, 공변량 구조를 적절하게 표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 자료 분석에 대한 특징은 종단적 연구 또는 개인 성장 모형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에 분석 되었던 방법들에 비해 많은 잇점이 있다.

이상의 수정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발전한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을 마친다.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의 토론문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초점을 맞춰 학업중단 의도와 관련한 예측요인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략 구상등과 같은 실천적인 근거 기반 자료를 통해 근원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시도는 신선하였고, 문제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해결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자분들께 감사하며 토론자로서의 역할이기에 추후에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기에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연구 목적 및 도구 관련

- 본 연구에서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문제를 중심으로 삼아 학습중단 의도와 관련한 예측 요인을 밝히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학업중단의 의미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업중단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해 준다면 이후에 제시되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요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일반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요인을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니는 특성을 덧붙여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인, 부모,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적인 특성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마지막에 제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민족정체성, 가치관 등에 관련한 사항이 위에서 구분한 세 가지 영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중단 요인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보다는 다문화‘청소년’측면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업중단 의도 보호요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설정한 연구자의 의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연구 모형 및 분석 관련

-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의 2014년도와 2015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에 관한 차이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계적 데이터가 구조화 되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석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사용한 것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신선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 왜 이 기법을 이용해서 학업중단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대한 방법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으나 왜 이 연구에서 특정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는지 이와 같이 분석함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신다면 보다 이해가 잘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 연구 결과 및 논의 관련

-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체계적으로 밝혀줌으로서 유용한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청소년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밝혀준다면 본 연구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국가별로 어머니 국적을 구분하여 결과 분석을 하였는데 왜 어머니 국적을 구분하였는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머니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문화 학생에게 또 다른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기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로서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연구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토론문

안진아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의식 발달과 관련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국적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연구이다. 또한,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다문화 진로상담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추가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유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길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관계적 요인들을 포괄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다만, 연구 변인 및 대상에 대한 명명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종속변인인 진로의식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이해수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측정 변인은 ‘진로결정 수준 및 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이것이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진로의식에 부합하는 구인인지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진로의식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독립변인인 성취동기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종속변인 측정치와 다소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근거가 제시되면 연구결과에 대한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문화’라는 것은 비단 인종이나 국적의 차이 이외 성적 지향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유무, 결혼구성 형태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Comas-Díaz, 2012). 심지어, 국적/인종만을 고려하더라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권 등으로 다양하며, 아시아권 내에서도 국적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이 96% 이상 압도적으로 어머니가 다른 아시아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국적의 분포가 어떠한지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토대로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인지 연구 논문의 제목 혹은 서론에서 제시되는 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과잉 일반화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어떤 차원의 다문화인지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자칭 ‘아시아권 이주 여성을 어머니로 둔 가정’으로 임의적으로 명명해버리는 오류를 줄이고, ‘다문화’란 용어가 보다 열린 개념으로 여러 문화적 다양성을 두루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취동기, 우울, 관계적지지 요인 등이 종속변인인 진로의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본 연구결과는 흥미로운 점이나, 회귀분석만으로는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진로의식이 높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교사의 지지를 더 받게 되는 역의 관계의 잠정적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후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의식 발달에 기여하는 변수들을 추적하는 종단연구 혹은, 진로의식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들 간 구조적 관련성 및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후속될 때, 보다 풍성한 논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연구와 같이, 인종이나 가족의 구성배경 요인은 개인이 혼자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며, 때문에 개인내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서, 가정과 학교, 사회적 변인의 영향력 전반을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교육적, 임상적, 정책적 개입방안에 대한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연구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정책 수립 및 교육, 심리적 지원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참고문헌

- Comas-Díaz, L. *Multicultural Care—A clinician's guide to cultural compet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매개효과」의 토론문

정은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진로발달 과정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으로, 이들의 진로결정성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제언처럼 진로상담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관점에서 논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는 ‘건강한 진로발달’을 이루기 위한 변인들의 구조적 연결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진로발달’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이에 대한 정의나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다면 독자로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연구결과 중,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성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구결과들은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성 간의 유의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를 한 요인으로 보고 진로결정성과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문은 사회적지지를 ‘부모’, ‘교사’, ‘친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지지를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진로결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연구자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을 제언하였지만 본 연구의 목적 상 사회적지지를 세분화하여 진로결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셋째, 그림 1. 연구모형을 이해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사회적지지는 부모, 친구, 교사와 관련한 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이고, 자아존중감은 4문항, 자아탄력성은 14문항, 진로결정성은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모형에서 사회적지지가 총3개 측정

변수(부모 6문항, 친구 7문항, 교사 6문항)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가 가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자아탄력성은 전체 14문항이라 설명하고 3개의 측정변수를 연구모형에 제시하였습니다. 진로결정성도 10문항인데 비슷하게 모형이 제시되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요인으로 묶어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도구에 설명하거나, 아니면 모형에서 전체 측정변수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의 진로와 관련한 변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의 대상·내용·방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연구」의 토론문

이승미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비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는 교육의 지원내용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지원을 받은 교육내용과 희망하는 교육지원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이 결핍의 가설에 근거한 보상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지원 방법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는 ‘차이의 가시화’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차별의 전조로 인식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할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원내용 분석에서 표 4(p.12)는 성별에 따라 경험한 지원내용과 희망하는 지원내용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희망교육 지원에서 보면, ‘심리적 적응프로그램’(65.8% vs 34.2%),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62.3% vs 37.7%), ‘이중 언어 프로그램’(66.0% vs 34.0%)에서 여학생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심리적 지지가 있는 교육내용을 더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문화공연관람, 놀이공원 방문 등의 문화체험 활동은 실제 경험한 교육지원과 희망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지원항목이면서 여러 지원항목 중 청소년이 가장 희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지원을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교육내용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종단데이터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교육지원내용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면 연령대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요구를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한다. 각종 미디어에 음식, 놀이, 관광지 체험이 넘쳐나는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이 또래집단과 어울리기에 가장 중요한 지원항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3) 표4와 표5는 방과후 수업료,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급식비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방과후 수업이나 멘토링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 알수 없으나 보상교육 차원의 언어교육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가정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역시 6년간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4) 지원방법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보여주는 바는 어떤 내용이라도 다문화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교육을 경험하고 나면 교육지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임이 드러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시행이 차별의 부정적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5) 지원 대상에서 다문화가정 구분지원 정책보다 통합교육으로 차별을 없애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변수, 즉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교육 필요성 여부(s_cq47)와 학교적응력(s_cq30~33)을 보았다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만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학습결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다문화사회로의 압축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어 다양한 논의나 교육적 실험이 없었다. 좀더 다양한 교육지원과 방식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이민자 중심의 좁은 범주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넘어 동성애자, 장애인, 빈곤층 등에 대한 연구(설규주, 2010)가 다문화연구와 담론의 저변을 형성할 때 보상교육에서 문화역량 강화교육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갈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교육지원대상에서 사회변화 주체로 세우는 교육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설규주 (2010). 다문화교육이해, 동문사
- Bennett, C.I. 저, 김옥순 외 역(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토론문

최유정

이화여자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초빙교수

한국의 다인종, 다민족화 현상이 선진국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문제나 쟁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탈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나 불안한 정치, 안보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부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문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인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모두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겠다. 특히 정체성의 다차원적 특성과 동태적 성격에 주목하여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충분히 학문적 깊이와 논리적 설득력을 가진 논문으로 판단되지만 부분적으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논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과 제언을 아래에 제시한다.

1. 먼저 사회적 어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과 선행 연구 검토 차원에서도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학교 차원에서의 적응 문제로 세부적으로도 학교수업 적응, 학교 친구관계, 학교 교사관계로 측정되었다. 이외의 사회 적응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적응’이라는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여 제목과 논문의 표현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사회적 어울림이라는 용어를 필자가 고수하고자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해 논문에서 좀 더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정형화된 유형으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문화, 국가, 종교 등의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격으로 규정, 이해해야 한다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는 심분 동의하나 실제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수용도, 외국문화선호를 정체성의 세부 요소로 구성한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 즉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 이론적 근거가 있다면 논문에서 제시해주면 좋겠다.

3. 선행 연구 검토에 있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적응 양상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적응에 관한 연구를 총괄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학교 적응 양상’과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두 차원에 관련된 논문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려다 보니 내용이 중복되어 이해를 저해하는 면이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 기존 연구에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온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면서 그 요인의 하나로 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을 제시하고, 다시 두 번째 파트에서 정체성이라는 변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과 그것의 ‘결과’를 다룬 연구들을 다시 소개하다보니 내용이 겹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파트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러한 접근들의 ‘한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소재목과 기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이 논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4. 정체성의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논문의 논지나 패널 조사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생각할 때, 언뜻 독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들이 두 개의 측정 시점을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를 거쳤으며 그것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총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 논문의 내용에서는 ‘정체성의 변화, 즉 동태적 성격(종단적 측면)’과 ‘정체성의 유형을 포함해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횡단적 측면)’각각을 설명하고 있어 양 차원이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규명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애초 연구자의 의도와 목적이 해당 분석을 통해 어떻게 타당하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준다면 논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 참고문헌

- Back, L. 1996, *New Ethnicities and Urban culture*, UCL Press: London
- Hall, S. 1991, “*Old and New Identities, Old and New Ethnicities*”, in King A. D.(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McMillan: London.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요인의 구조관계」의 토론문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 학술논문이 요구하는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석의 엄정함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논문심사 형태의 토론보다는 제출된 발표문에 대한 논평자의 전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3. 먼저 토론문의 제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진공상태에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제 수준의 명제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행위나 의식은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찰 없이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속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자유롭게 부유하고 있는 존재들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글의 어떤 부분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의 행위와 의식을 규정(또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특정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일정수준 폐쇄적인 인간 공동체(우리는 이것을 사회라고 흔히 부른다)가 공유하고 있는 행위양식이며 따라서 문화는 그 자체로 심리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현상이다. 물론 이 연구가 설정한 종속변수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응 또한 일견 개인의 심리상태로 보이지만 그것의 배후에는 사회적 맥락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본 논평자가 설문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연구대상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포착해 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논평은 ‘귀납’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평자의 확고한 신념은 “모든 인식은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즉 가설에서 출발한다”이다. 과학적 인식은 백지상태에서 귀납적으로 경험적 현상을 관찰하고 이에 기반 하여 경험적 일반화에 이른다는 논리실증주의적 사고는 이미 ‘귀납의 한계’ 문제로 인해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글과 관련하여, 본 논평자의 아쉬움은 바로 ‘가설의 부재’에 있다. 연구자는 세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연구문제라기 보다는 분석의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분량의

과거 문헌 검토는 수행하였으나 정작 그에 기반 한 연구자의 창발성이 담긴 가설의 도출이 없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5.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준 발표자에게 감사드리며 토론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토론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 ·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의 토론편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0년 전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70-71회 총회보고서에서 한국사회가 집착하는 단일민족의 가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의 증가로 빠르게 다국적, 다민족 사회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순수혈통주의와 같은 시대착오적 사고에 갇혀 현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CERD, 2007:91). 따라서 한국의 초·중학교 교과과정에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인종 집단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인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추가하자는 것이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이었다(CERD, 2007:91).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10년 사이 우리사회가 얼마나 다문화 친화적으로 변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16년 3월 14일에 배포한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5년 54점으로 2011년의 51.2점보다 3.8점 증가했다. 3.8점의 통계적 유의성은 차치하더라도 4년간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3.8점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문화를 포용하려는 우리사회의 의지가 강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이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보도 자료(여성가족부, 2016:2)를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의 성원들이 한국에서 온전한 성원으로 인정받고 사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영주, 박륜경 그리고 이수경(이하 이영주 외)의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에 따라 한국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문화적응 실태를 군집분석으로 유형화한 결과(이영주 외, 2017:13)는 다문화청소년의 다수가 한국문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패널(1,340명) 중 한국문화에 친밀감을 보여준 패널은 27.5%(40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9.9%는 외국문화에 더 큰 친밀감을, 42.5%는 어느 쪽에도 친밀감을 갖지 못하였다. 다문화청소년 10명 중 채 3명이 안 되는 청소년만이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이영주 외가 실시한 후속 분석 결과(이영주 외, 2017:17), 즉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다문화청소년 집단이 심리적 측면은 물론 학교 적응 측면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우수한 점수를 보여준 것은 결국 지금의 한국사회가 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을 불행한 이방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영주 외는 결론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정리하였고 그에 대한 해법도 나름대로

모색하였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논문이지만 토론자가 지적하고픈 소소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변수의 설명 부족: 9쪽에서 나열한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인지 논문에 기재했으면 한다.

2. 군집분석 결과의 활용 부족: 13쪽에 설명한 군집분석에 투입한 변인은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한 태도 점수 2개이다. 분석을 통해 분류된 각 군집들이 어떤 인구·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이 이들의 문화수용 태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영주 외가 표6의 χ^2 검증 결과(16쪽)를 통해 제시한 것은 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이의 통계적 관계 유무이지 '왜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 작업에 성공했다면 후속 분석으로는 어떤 변인이 이들의 문화수용 태도를 결정짓는데 주요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이 본 논문의 핵심 이론틀인 만큼 토론자는 연구진이 Berry의 문화적응이론에서 제시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요인들을 패널 데이터에서 찾아보고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을 추가하길 권유한다.

3. 신뢰도와 타당도의 구분: 이영주 외는 9쪽에 사용변수들의 내적합치도, 즉 Cronbach's alpha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Cronbach's alpha는 변수들 사이의 측정일관성/신뢰도 수준을 보여주지만 그러한 변수들이 합쳐져 하나의 복합척도를 만들어도 타당한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후자는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후자 작업이 보충됐으면 한다.

4. 분석에 사용한 패널 데이터: 이영주 외는 8쪽에서 2015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횡단분석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논문의 한글 초록 및 결론에서는 2012년 데이터도 함께 분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문에 2012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연구진이 시계열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횡단분석을 했는지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보도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CERD (200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62/18). New York: United Nations.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토론문

강정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명을 넘어 총인구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5). 특히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주요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국제결혼은 총 20,591건으로 2015년보다 683건(3.2%) 감소하였으나,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3%로 전년보다 0.3%p 증가하였다(통계청).

다문화가정이 늘고 세월이 지나면서 청소년기 다문화가정의 자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학창시절을 거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 남모를 고통을 겪게 되는 데,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24세 청소년 자녀는 82,476명으로 추정되며, 2012년 조사(66,536명)에 비해 24.0% 증가하였다. 이 중 60.8%는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이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9~11세가 30.7%로 가장 많고,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2~14세가 23.2%, 고등학교 학령기인 15~17세가 17.6%, 18세 이상이 28.5%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이 보통이거나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10.2%이고,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9.4%에 달했다.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였다. ‘다문화’는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편견의 다른 뜻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발표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이라는 주제를 매우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집단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보지 않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구분된 집단에 대한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집단내의 이질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중심(person-centered)접근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다중회귀, 구조방정식 등의 변인-중심(variable-centered) 접근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하여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집단을 요약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연구대상의 유형을 분류하는 군집분석과 유사하나, 잠재변인을 사용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최적의 잠재유형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적합

도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우위를 지니는 연구방법이다.

발표한 논문은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 매우 적합한 주제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토론을 준비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유형설명, 이중문화에 대한 개념, 연구방법에서 그래프 추가, 집단별 추가 설명, 집단의 이름 수정, 오타 수정을 한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문영희 · 안은미, (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3집**, pp47-68.
- 통계청. 국제결혼 현황
-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의 토론편

김수지

연세우리가족상담센터 센터장

김민주·윤기봉(2017)의 발표논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청소년기라는 발달 단계적 특성뿐 아니라 문화적인 적응으로 인해 다문화청소년들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자신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국내의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미비하다. 기존의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가정 부모나 유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부모 교육을 통한 자녀 양육방법 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한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등이 있다. 자녀의 연령은 주로 유아동이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성장하여 청소년 단계로 진입하였고, 점차 더 많은 아동들이 청소년기로 전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 뿐 아니라 친구와 교사가 포함되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학습문제 개입 프로그램(신을진, 2009), 자아 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구향숙,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응 유연성 증진 프로그램(박은민, 2015), 트라우마 중재를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김경숙 외, 2017) 등이 있다. 다문화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둘러싼 체계를 포함하는 연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지역의 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다중체계적인 가족치료(Mutisystemic Therapy), 기능적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 단기전략적 가족치료(Brief Strategic Family Therapy)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Henggeler & Sheidow, 2012). 일차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이외에도 친구나 교사도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또래와 교사,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인 자원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나 학교안에서 다문화청소년

년이 속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와 학교에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 실천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향숙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83-112.
- 김정숙, 송은지, 김민경, 주세진, 김민정(2017). 다문화청소년의 트라우마 중재를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모형.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1(2), 361-366.
- 김민주 · 윤기봉(2017).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다문화청소년페스티벌 학술대회**.
- 박은민(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2(1), 37-54.
- 신을진(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습문제 개입 프로그램 요인탐색 연구. **복지상담학연구**, 4(1), 21-37.
- Henggeler, S. W., & Sheidow, A. J.(2012). Empirically Supported Family-Based Treatments For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8(1),30-58.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의 토론문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연구패널의 2차-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성취동기, 학업성적 만족도 등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문화청소년 1,320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 모집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 연구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의 변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분석의 제한점으로 인한 몇 가지 아쉬운 점들 또한 발견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궁금점과 제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교육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많지만 대부분 일반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다양한 심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다문화 수용성이 이들 심리 특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 근거와 이유 제시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아도 다문화 수용성이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구자께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연구자께서는 다양한 학생 심리변인들을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로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 특성은 인지, 정서, 동기, 행동적 특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자아탄력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 변인을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구자께서 데이터에 포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문화청소년들만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변인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다문화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논의 내용은 통계적 분석 결과에 제시된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기계적 해석 정도에 그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이들 청

소년의 세 가지 심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에 기반한 연구자의 해석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종단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이론적,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2차분석 연구는 큰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연구입니다. 이처럼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께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자께서 고민해주시면 다문화 교육에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Tel. 044-415-2143 Fax. 044-415-2359